

전북지역 기업 ESG 도입 저조... 기업지원 시급

전북상협 288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ESG 도입 21.9%에 그쳐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2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실태 및 대응과제 조사 결과 ESG 경영을 도입한 지역 기업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38.5%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8.7%)과 유통업(11.5%)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 도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지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87.5%가 ESG 경영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 기업들이 ESG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23.4%가 비용 부담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5%로, 경영진의 인식 부족이 18.8%, 생소한 ESG 개념이 18.5%, 경영상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1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를 2026년 시행할 방침이며, 국내 대기업에서도 협력사를 선정할 때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 있고, 투자자들도 ESG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현안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수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확산·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기업의 22.9%가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을 꼽고 있으며, 세제지원 혜택 강화(21.8%), 업

종별 가이드라인 제공(20.1%), 인프라·시스템 비용 지원(19.9%), 전담 지원기관 설립(15.3%) 순으로 지원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앞으로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기업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ESG 진단 및 컨설팅, ESG 대응 교육과 설명회 등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ESG에 관한 문의는 전화 ☎ 063-280-115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기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8~20일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RIN)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인니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향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전기안전 전파

전기안전공사, 인니 연구기관과 '안전 향상 워크숍'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8~20일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RIN)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인니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향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ESS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 에너지보존·변환센터 연구원 8명이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은 국립연구기관들을 통합해 국가연구개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다. 에너지보존·변환 센터는 ESS, 배터리를, 태양광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 동안 연구원들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기후 환경에 적합한 ESS 설계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공동 연구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북 새만금에 조성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에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관람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의 ESS 통합관제센터와 완주 산업단지 내 에너지저장장치연구소, 정읍 전기안전인재개발원과 전기재해연구소 등을 방문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시험·분석, 교육, 관제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내 전기설비 운영 현황 및 실증 기반 전기안전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한국형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만호기자



전북환경청, 물의 날 기념 만경강 '줍깅'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21일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만경강 일원(완주군 봉동읍)에서 방치된 영농 폐기물, 낚시어구 등을 수거하는 유관 기관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전북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한국환경공단(전북본부), 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부), 전북녹색환경센터 등 6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쓰레기 약 1.5톤을 수거했다.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올해 물의 날 주제를 '깨끗한 물, 건강한 미래'로 정하고, '깨끗한 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천 산책 시 쓰레기 줍기, 빗물 재이용 하기 등 생활 속 물 절약 실천행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서비스 속도 높인다

농진청, '제1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제1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ASTIS)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 시행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과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제공·연계 활용하기 위한 정보로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한다.

1차 기본계획은 ASTIS(ASTIS) 기반 구축, 농업과학 기술 정보 활용 촉진, 농업과학 기술보급 전달체계 효율화로 '데이터 기반 실시간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서비스 실현'이 목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에스티스(ASTIS) 시스템(https://astis.rda.go.kr)'을 이용자 친화적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농업', '기후변화대응', '지역농업 활성화'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운영

해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운송도, 일사량 같은 환경정보 위주로 제공한 기술 서비스 범위를 농작업 데이터 수집과 기술도입, 효과 분석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 기술을 지도하기 전에 농장 데이터 통합 관리 정보에 기반해 비대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과 지역 농업인 대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 과학영농 법적 위임 사무를 확대하고, 정보(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가 맞춤형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목 가공지원, 청년농업인·치유농업·농업인 안전 등 수요자 중심 정보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 NH-OIL 농협주유소장 업무교육·협의회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최근 전북농협 주유소장 83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NH-OIL 농협주유소장 업무교육 및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교육에서는 △주유소 환경관리 및 점검표 작성요령 △주유소 경영관리(가격 및 재고관리) 등 농협주유소장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업무교육 및 협의회에서는 농협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유소 경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와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최근 주유소 당면 현안을 공유하며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업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면세유 및 영농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실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OIL 전북주유소장 협의회는 범국민 식습관 개선 및 쌀 소비촉진을 독려하고자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에도 동참했다. /이만호기자

전북은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통한 금융거래 지원

6개 은행서 최초 시행... 모든 비대면 거래 지원은 전북은행이 유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이날 21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계좌개설 등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시행했다.

특히 비대면채널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모바일앱 속뱅크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

좌개설부터 대출신청까지 가능하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은 최근 외국인종합금융플랫폼 '브라보 코리아'를 출시하는 등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확대도 외국인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행동